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지난 23일 한국인 23명이 피랍된 수도 카불과 탈레반 거점인 칸다하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검문소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 탈레반, 협상시한 24시간 재연장

### 한국과 직접 협상 요구... 피랍 장기화 가능성

탈레반 무장세력이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 시한을 24일 밤 11시 30분(한국시각)으로 하루 더 연장했다고 로이터와 AP 등 주요 외신들이 23일 밤 보도했다.

이에 앞서 탈레반측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의 한국인 인질 구명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 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제의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4면〉

더욱이 한국인 인질 23명과 반군 수감자 23명간 '1대 1 맞교환'을 요구

해왔던 탈레반이 '한국인이 피랍된 가즈니주(州) 내에 수감된 탈레반 무장대원을 모두 풀어달라'는 내용의 새로운 석방조건을 제기하고, 아프간 정부도 탈레반 수감자 교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인질 석방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과 관측통들은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 인질 23명을 붙잡고 있는 아프간 탈레반 무장세력은 이날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시한을 24시간 재차 연장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23일 밤 "지금 현재도 무장단체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른바 시한) 이후에도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AIP)에 따르면 탈레반 지휘관인 압둘라 잔의 대변인은 "아프간 정부와의 협상이 실패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직접 우리와 대면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또 "현재 인질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폭탄이 장착된 조기를 입을 자살폭탄 테러 단원들과 탈레반 수색대원 등의 관리하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가즈니주 출신 국회의원인 카일 무하마드 후세이니는 탈레반이 23일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높여 한국인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가즈니주의 반군 수감자를 전원 석방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압둘 하디 칼리드 내무부 차관은 이날 알-자지라 방송과 회견에서 아프간 정부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을 어기는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정부는 이날 현지 부족장 등을 중개인으로 내세워 협상을 벌였으며,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 대책반 원으로 파견된 문하영 전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의 아프간 정부 대책회의 참석을 허용했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 하남시장 주민소환 전국 첫 투표

### 주민 3만여명 어제 청구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23일 주민소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김형식 하남시장

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하남시 선관위에 청구했다.

주민소환추진위 측은 소환이유에 대해 "광역 회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의 대표

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소환추진위는 소환투표 청구인 대표 신청, 서명요청권 위임자 신고 등을 거쳐 이날 김 시장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수(투표권자의 15% 1만5천759명 이상)를 초과한 3만2천749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 오쿠이 광주비엔날레 감독 상하이비엔날레 겸직 '논란'

### 자문위원 맡아

가짜 박사 신정아씨 파문으로 내년 광주비엔날레 단독감독에 선임된 오쿠이 에위저(45·샌프란시스코 미대 확장)씨가 광주 비엔날레와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상하이 비엔날레에서 전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쿠이 감독은 지금까지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관련기사 2면〉

지난 96년 창설된 상하이 비엔날레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와 비슷한 시기인 내년 9월1일 개막, 관객 유치 등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국제 미술행사다.

17일 중국 뉴스 포털사이트인 '시각중국'(www.chinavisual.com)에 따르면 지난 10일 상하이미술관에서 열린 제7차 상하이비엔날레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 오쿠이 에위저 미 샌프란시스코 미대 확장·줄리안 헤이던 뒤셀도르프 K21 미술관장, 에델버트 롱 비엔나 현대미술관장, 우후 시카고 대학 동아예술센터장 등이 참석



〈오쿠이 감독〉



중국 포털 사이트 '시각중국'에 게재된 상하이 비엔날레 자문회의와 오쿠이 에위저씨 관련 기사.

했다. 3일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 오쿠이 씨 등은 국제비엔날레의 발전 추세, 상하이 문화와 상하이 비엔날레의 관계, 제7차 상하이 비엔날레의 주제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오쿠이 씨는 더욱이 지난 19일 신정아씨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그를 만나 온 광주 비엔날레 재단 관계자와 내년 비엔날레 전시기획안과 감독 계약체결 등 현안을 논의하면서도 자신의 상하이 비엔날레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당시 오쿠이 씨는 재단 관계자에게 "중국에서 내년 전시 기획안을 구상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홍희 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은 "오쿠이 감독이 경쟁관계에 있는 상하이 비엔날레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도의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신정아씨 사태로 준비단계에 차질이 생긴 광주비엔날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상황에서 이 같은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아직 감독으로 정식계약을 맺은 상태가 아닌 데다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인사인 만큼 전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것까지 문제삼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나라 합동연설회 전면 중단

### 李·朴 세대결 과열... 오늘 광주 연설회 취소

지난 22일 제주 합동연설회의 몸싸움 파동을 계기로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가 합동연설회 잠정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에 나섰다. 〈관련기사 5면〉

합동연설회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의 극심한 세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파행이 우려 된다는 판단에 서다.

23일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갖고 24일로 예정된 광주 합동연설회를 포함, 12차례의 합동연설

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나라당 선관위는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 캠프가 과열을 방지하고 소란과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당에도 과열과 소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철저한 방지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요청이 이뤄지는 대로 다시 논의를 가진 이후 개최 여

건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합동연설회를 열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해양지대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꿈을 가진 인재들을 찾습니다

경 신원 신박건설주주 총액 6억부 주

www.saramojip.com

구분	직책	학력	나이	성별	비고
1	인사팀장	대졸	25~35	남	경력 5년 이상
2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2년 이상
3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4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5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6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7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8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9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10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11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12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13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14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15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16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17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18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19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20	인사팀원	대졸	25~35	남	경력 1년 이상

(주)오리엔트조선 · (주)오리엔트중공업